

엔저로 부활하는 일본기업

- 엔화가치의 하락과 주가 상승 영향으로 일본기업들의 '13년도 수익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
- 일본기업들의 부활은 환율 효과도 있지만, 철저한 구조조정과 코스트 삭감노력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기업과의 경쟁이 격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경쟁력 강화 등 대비가 필요

□ 수익이 증가하고 있는 일본기업

- 2013년 주요 업종별 일본기업의 수익은 엔저와 구조개혁 효과로 증가
 - 업종에 따라 수익 회복이 현저한 기업이 있는 반면, 전기·전자산업은 여전히 글로벌 기업과 격차가 발생
- 마이니치신문 조사에 따르면 '14년 신규 채용을 늘릴 기업은 약 30%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
 - 일본 국내에서는 소비세 인상에 따른 내수 위축에 대비하기 위해 기본임금을 인상하는 기업도 증가

□ 업종별 수익 상황

(자동차)

- 도요타자동차의 '13년도 이익은 2조 5300억엔(세전)으로 과거 최고를 기록, 세계 2위인 폭스바겐(독일)과 격차를 벌임
 - 도요타자동차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코스트 삭감, 일본국내 공장의 손익을 매일 파악하는 등 구조개혁을 추진
 - * 과거 최고 이익을 낸 '07년도보다 14엔 정도 엔고 상황인데도 6년 동안 1조 5000억엔의 코스트를 삭감시켜 최고 이익을 갱신

- 혼다는 경상이익이 7위에서 5위로, 후지중공업(스바루)은 17위에서 13위로, 마쓰다는 25위에서 20위로 실적이 개선
 - 마쓰다는 수출비율이 전체 생산의 70%이상으로 6년 만에 최고 영업이익 기록, 일본 국내에서 고용을 유지하는 생산방식을 고수해 온 경영전략이 엔저를 계기로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

(철강)

- 신닛테츠스미킨이 3400억엔의 이익을 기록하면서 포스코를 역전시켜 1위로 복귀, JFE홀딩스, 고베제강소 등도 실적이 크게 회복
 - 신닛테츠스미킨의 수익이 회복된 배경에는 자동차용 수요 증가, 동일본대지진 부흥관련 수요 증가, M&A에 의한 코스트 경쟁력 강화 등임
- 포스코(한국)는 원高, 바오산철강그룹(중국)은 그림자 금융(shadow banking) 등으로 인한 설비투자 감소, 아르셀로미탈(룩셈부르크)은 유럽의 강판사업 침체로 글로벌 철강기업들이 고전하고 있는 상황

(게임 소프트웨어)

- 인기 게임 앱 ‘퍼즐앤드래곤’으로 유명한 ‘강호온라인엔터테인먼트’가 전년 대비 9.6배의 경상이익을 기록하여 경상이익을 2위로 급부상
 - 스마트폰 보급 확대로 가정용 게임기나 컴퓨터 게임 소프트웨어보다 퍼즐을 중심으로 한 스마트폰·태블릿용 게임 앱의 수요 증가가 배경

(전기)

- 히타치제작소의 수익은 전년보다 29% 증가한 4450억엔으로 23년 만에 영업이익도 최고를 기록했지만 이익규모는 삼성전자의 1/7, 제너럴일렉트릭(미국)의 1/3 수준
 - 히타치제작소가 최근 주력하고 있는 부문은 철도차량으로 제조부터 판매 후의 AS·운영까지 책임지는 서비스 사업에도 매진
 - 작년에 영국에서 수주한 고속철도는 AS 기간을 약 30년으로 설정하여 서비스사업부문의 매출 비율을 높여나갈 방침
- 소니는 박형TV사업의 부진으로 세전이익이 전년보다 67% 감소된 800억엔, 순위는 5위에서 9위로 추락

- '14년도에 컴퓨터 부문을 매각하는 등 사업구조를 개편하여 게임, 카메라용 센서, 스마트폰 등 주력 3분야에 경영자원을 집중시킬 계획

□ 시사점

- '13년 대미달러 대비 엔화 가치는 20엔 정도 하락하여 일본기업들의 수익을 개선시켰지만, '14년에는 엔저 효과가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일본기업들은 환율 효과에 기대하지 않는 경영전략을 추진할 전망
- 일본전산은 컴퓨터사업 부진을 예견하고 주력제품인 HDD용 모터의 판매 침체를 보완하기 위해 5년 전부터 자동차관련 사업을 육성시킨 결과 '13년도에 최고 이익을 갱신
- '13년 웅진케미칼의 주식 56.2%를 약 400억엔에 매입한 도레이는 향후 3년간 M&A에 2000억엔을 투입할 계획
- 설비투자나 개인소비가 그다지 확대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규제개혁의 완화 여부가 일본경제의 향방을 결정지을 것으로 보임
- 금융위기 전보다 실적이 개선된 것은 평가할 만하지만, '03~'07년에도 대기업만이 성장을 실감하였고, 중소기업이나 개인들은 경기 회복을 느끼지 못했다는 점에서 일본경제의 본격 회복은 기대하기 곤란
- 일본 자동차산업의 업적 회복은 우리 자동차부품 산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
- 자동차부품 등 일본기업들의 실적이 개선되는 분야에 대해 우리 기업들은 일본기업과의 비즈니스 확대를 적극 모색할 필요

<참고자료>

닛케이신문(2014.3.21/25), 마이니치신문(2014.3.22.), 아사히신문(2014.3.11.)

< 2013년도 주요 업종별 이익 비교 >

	순위	(전년도 순위)	기업명	13년도 경상이익(억엔)	전기 대비 증감률(%)
자동차	1	(1)	도요타자동차	25,300	80
	2	(2)	폭스바겐(Volks Wagen, 독일)	11,457	-26
	3	(3)	BMW(독일)	10,256	1
	4	(4)	현대자동차	7,979	-2
	5	(7)	혼다	7,550	54
	8	(6)	닛산자동차	5,150	-3
철강	1	(2)	신닛테츠스미킨	3,400	4.4배
	2	(1)	포스코	1,896	-37
	3	(5)	JFE홀딩스	1,700	3.3배
	4	(3)	뉴코(Nucor, 미국)	772	-7
	5	(9)	고베제강소	700	흑자전환
	10	(11)	아르셀로미탈(ArceloMittal, 룩셈부르크)	-1,872	적자지속
게임 소프트	1	(1)	액티비전 블리자드(Activision Blizzard, 미국)	1,288	-10
	2	(7)	강호 온라인 엔터테인먼트	901	9.6배
	4	(5)	일렉트로닉 아트스(Electronic Arts, 미국)	578	4.0배
전기	1	(1)	삼성전자	33,761	31
	2	(2)	제너럴 일렉트릭(General Electric, 미국)	15,767	-7
	3	(3)	지멘스 AG(Siemens Aktiengesellschaft, 독일)	6,490	-23
	4	(4)	히타치제작소	4,450	29
	5	(9)	미쓰비시전기	2,200	3.4배
	6	(12)	파나소닉	2,100	흑자전환
	9	(5)	소니	800	-67

*주 : 경상이익의 일부는 세전 손익, 증감률은 현지통화 베이스.

**자료 : 닛케이신문(2014.3.25)